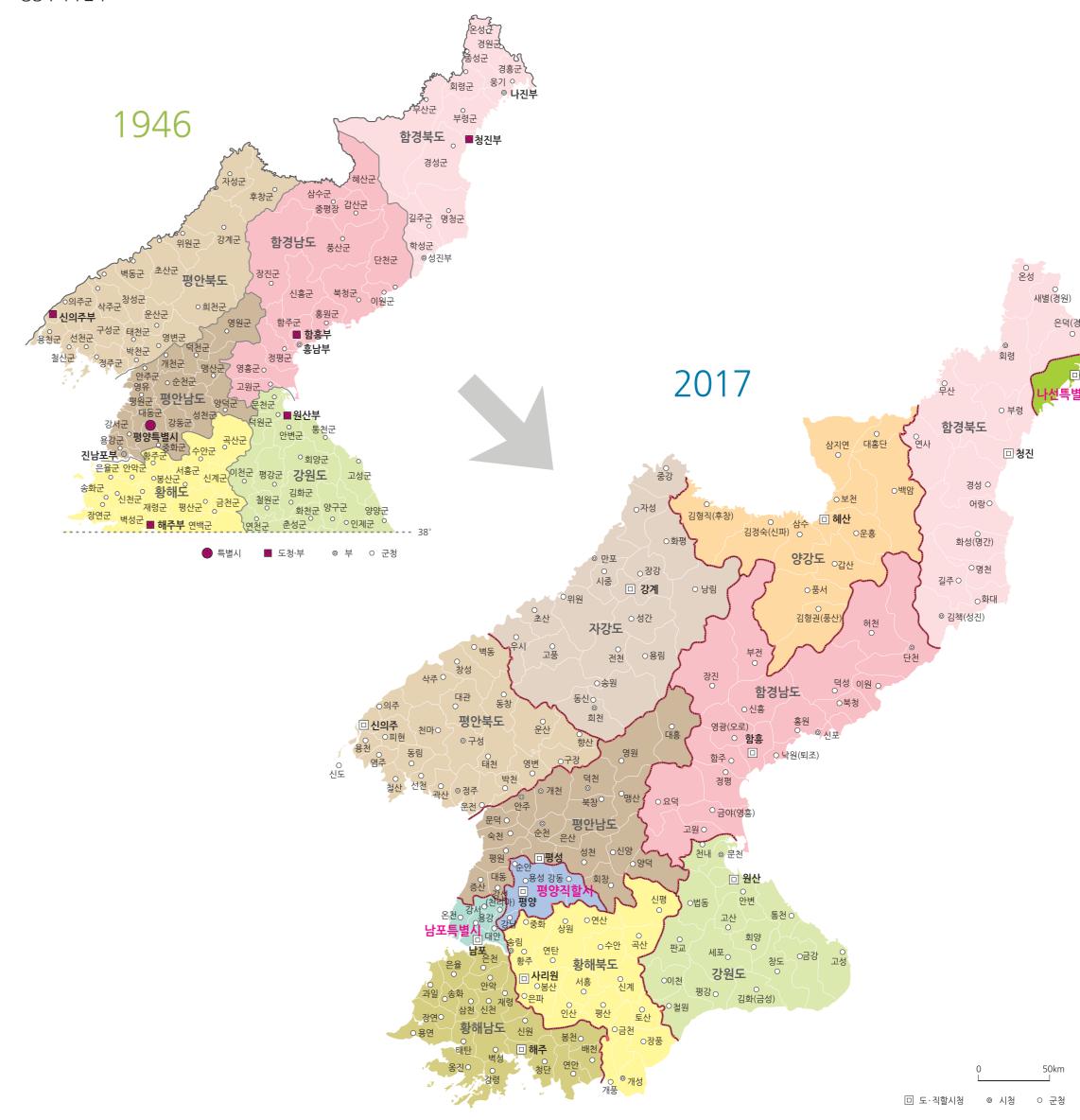
## 북한의 행정 구역

#### 행정 구역의 변화



결된다. 남쪽으로는 황해북도 개성시와 장풍군, 강원도의 철원군, 지대에 발달해 있다. 남한의 경기도 및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행정 구 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40여 종에 이른다. 9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지역은 195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로 설정된 군사 분계선 이 북한 지역의 지형은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 운데 53~63%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린 북 지역을 말한다. 북한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3,138km²로 우리나 - 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 다. 또한,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지역에 따 라 전체 면적 223,516km²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모향산맥 등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라 편차가 상당히 크다. 북한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2,501만 명이고, 인구 밀도는 남한 인구 밀 등이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 이 풍부한 편이었다. 도 512.6명/km²의 40% 수준인 203.1명/km²에 그치고 있다. 북한 고 남부와 서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4대 군사 노선의 하나인 '전 국토의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 목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들은 산악 지대를 요새화'정책,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연 개조 5대 방침에 따른 '다 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접 벗어나면 완만한 경사를 가진 곡류 하천의 특성을 보이지만, 두만강, 락밭(산비탈에 계단형으로 만들어진 밭) 개간', 1980년대에 시작한 해 있다. 중국과의 국경선은 1,353.2km에 이르며, 신의주-단둥 남대천 등 동해로 흐르는 강들은 하천의 길이가 짧은 직류 하천의 형 '새 땅 찾기 사업' 등으로 산림 훼손이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경 구간의 압록강철교 등 교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철도로 연결된다. 러 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평야인 평양평야, 재령평 제난으로 식량, 연료 등을 얻기 위해 산림의 이용이 높아지면서 산림 시아와는 16.2km를 접하고 있으며, 나선-하산을 잇는 철도로 연 야, 연백평야 등은 주로 황해로 흐르는 큰 하천들을 중심으로 서해안 의 황폐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역 개편이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로는 최근 경제적 목적으로 시행한 부한 지역의 기후는 온대 지역에 속하나,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 정하였고, 그 결과 2018년 7월 4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나선시와 남포시의 특별시 승격을 들 수 있다. 2017년 현재 북한은 인다.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매우 춥 산림 협력 분과 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간의 산림 협력은 새롭게 추 1개의 직할시(평양직할시), 2개의 특별시(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지만, 여름은 태평양 남동풍의 영향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특성을 보 진되고 있다. 인다. 북한 지역의 연 강수량은 약 600~1,500mm에 이르며, 이 가

2007년 10월 남북 정상 회담의 결실인 10·4 선언에서 "농업, 보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북한 지역은 지질적으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신생대에 이르기까 건 의료,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지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물 자원이 분포되어 로 합의"하였고. 이후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1945년 광복 당시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은 6개 도, 9개 시, 89개 있다. 대표적으로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병해충 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 군, 810개 읍·면이었다. 그러나 1952년 12월 행정 체계 및 구역 개 운모, 형석 등 8종 광물의 경우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가지고 5·24 조치로 인해 산림 당국 간 산림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 단 편을 통해 도(특별시) - 시·군 - 읍·면 - 리(동)의 4단계 행정 구역 체 있으며,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도 세계적으로 많은 체에 의한 산림 복구 지원 사업도 중단되었다. 이후 2018년 4월 27 계에서 면을 폐지하였고, 도(직할시)·시(구역)·군-읍·리(동·노동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부존 광물 중에서 경제 일 남북 정상 회담 결과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우선 과제로 남측 정부는 산림 협력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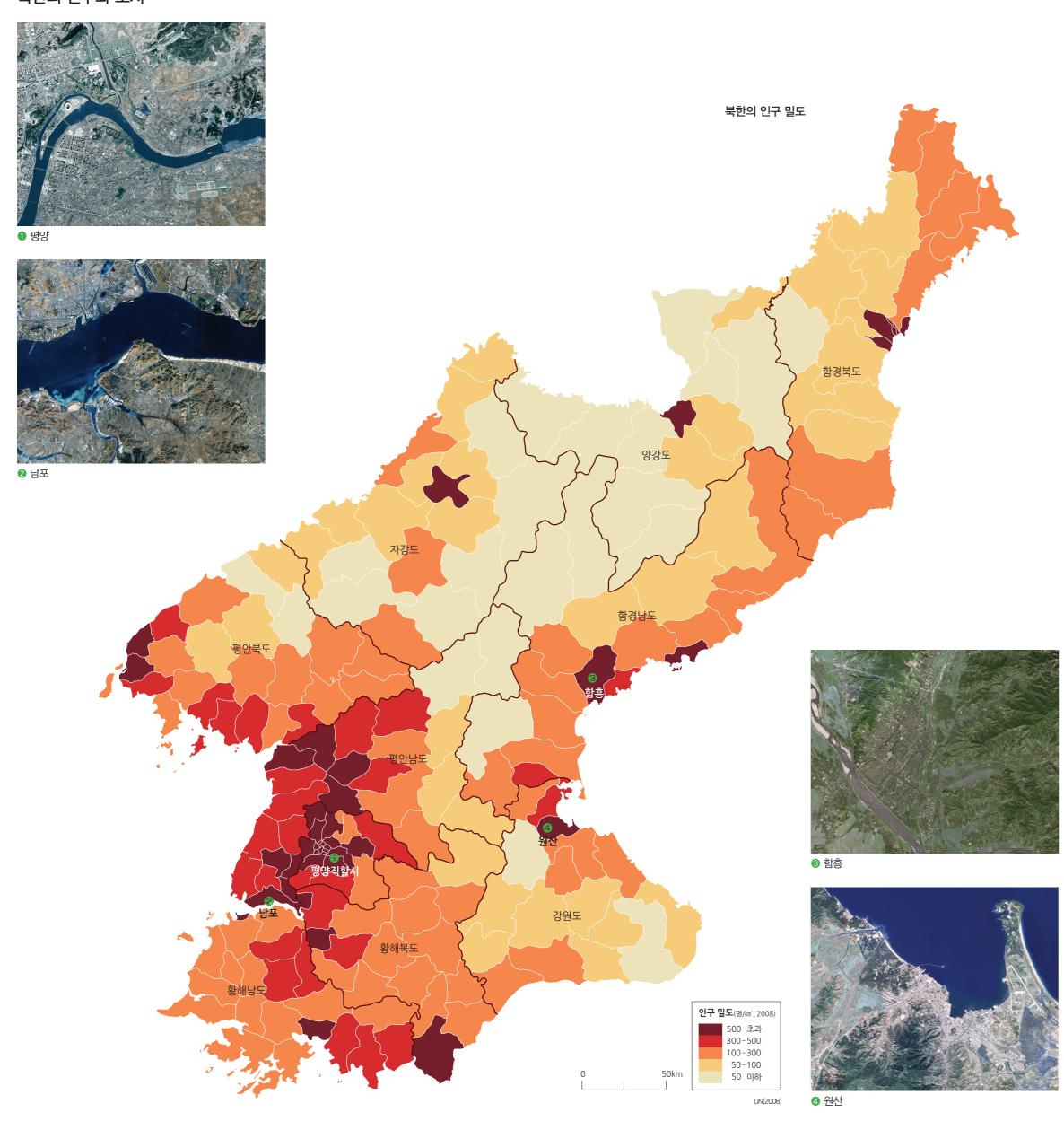
북한 행정 구역 현황



-)						2017년				
	구분		시·군·구역·구·지구 읍·리·동·노동지구							
		시	군	구역	구	지구	임	리	동	노동지구
	평양직할시	-	2	18	-	-	2	57	284	10
	나선특별시	-	-	-	-	2	-	12	20	-
	남포특별시	-	2	5	-	-	2	49	73	5
	평안남도	5	14	-	2	-	14	347	118	26
	평안북도	3	22	-	-	-	22	484	88	31
	함경남도	3	15	7	1	1	15	465	160	35
	함경북도	3	12	7	-	-	12	253	134	44
	황해남도	1	19	-	-	-	19	419	26	11
	황해북도	3	18	-	-	-	19	393	78	8
	강원도	2	15	-	-	-	15	379	61	7
	자강도	3	15	-	-	-	15	229	68	23
	양강도	1	11	-	-	-	11	143	25	67
	합계	24	145	37	3	3	146	3,230	1,135	267
18)										통계청(2018)

북한 지역 개괄

#### 북한의 인구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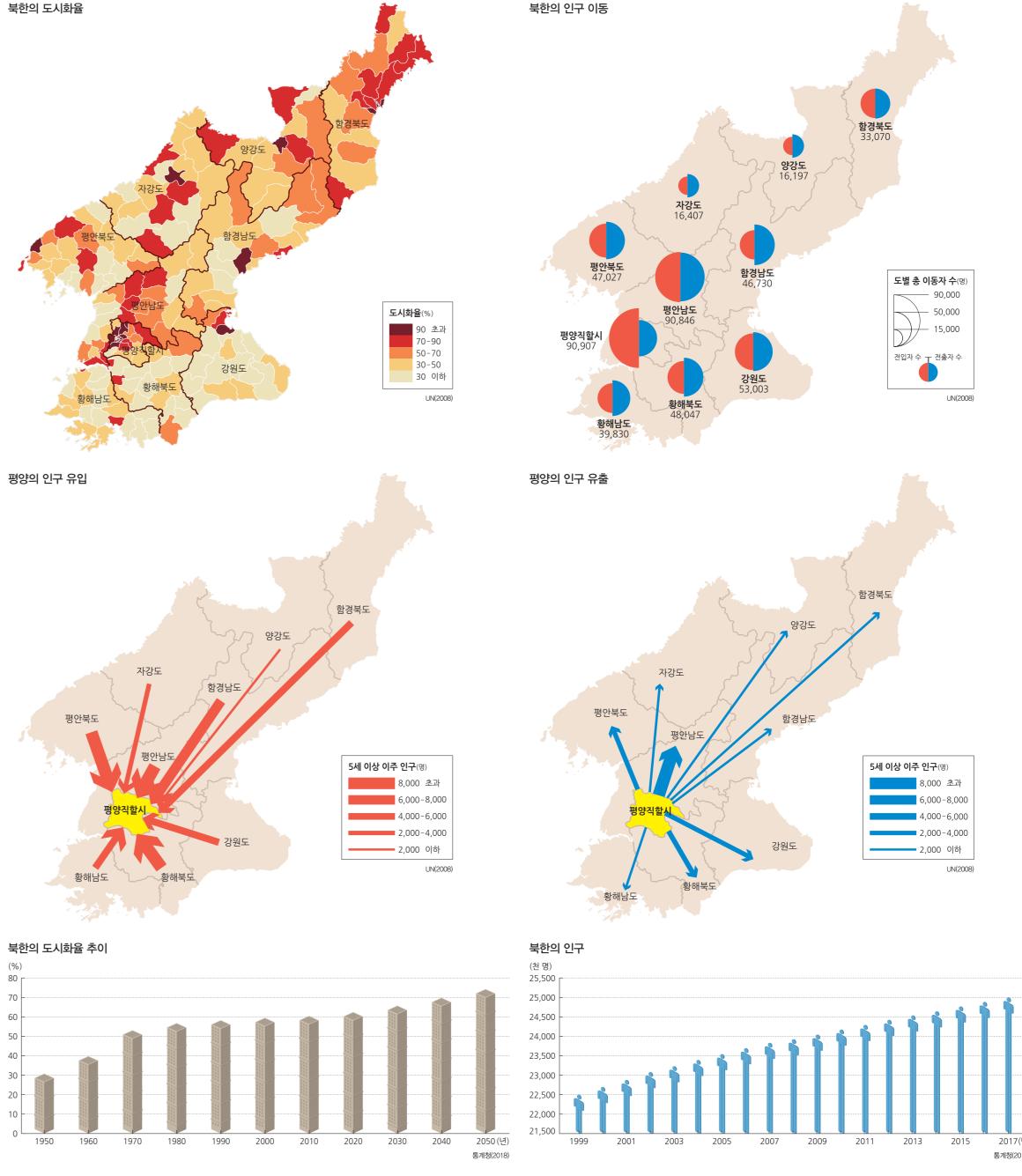
다. 그러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급감하여 1953년에는 약 849만 로 낮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에 산악 지대가 많은 북동 지역 도로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광복 이후 1946년 북한 지역의 전체 인구는 약 926만 명 정도였 흥시, 강계시 등 일부 도시와 동해 연안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며, 뒤를 이어 황해북도가 13.6%, 평안북도가 13%를 차지하고 있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은 혜산시, 청진시, 함 평양직할시의 경우 전체 전입 인구의 30.2%가 평안남도 출신이 고 볼 수 있다.

다. 평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체로 전입 인구가 줄어드는 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구가 유엔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지역의 5세 이상 이주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평양의 전출 인구는 평안남도가 40.2%를 증가하면서 1958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고, 인구는 총 234,8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데,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다른 지역들로 1980년대 후반에 2,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북한 중앙통계국 이는 북한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의 전출은 전반적으로 고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양의 전입 및 이 공표한 인구 자료에 따르면, 경제난 등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의 은다. 도별로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평양직할시와 평안남도의 이주 전출 인구의 구성에서 또 다른 독특한 양상은 다른 지역보다 양강도 인구는 1992년에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하였다. 이후 1993년부터 인구가 가장 많다. 특히 평양직할시의 경우 북한 지역 전체 전입 인 와 자강도로의 인구 이동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양강도와 매년 꾸준히 약 1% 내외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4년에 전체 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어(전출 인구는 10.2%), 전체 북한 지역 자강도로의 전출 인구 비율은 0.01%와 0.03%이며, 양강도와 자강 인구가 2,400만 명을, 그리고 2017년에는 2,500만 명을 넘어선 것 에서 가장 높은 비율과 많은 수의 전입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 도에서 평양으로의 전입 인구는 0.03%와 0.04%에 그치고 있다. 이 에 다른 북한 지역 중에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만이 전입 인구가 전 는 양강도와 자강도의 인구가 적다는 사실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으 북한 지역의 인구는 주로 고도가 낮고 평야 지대인 남서 지역에 집 출 인구보다 많고, 나머지 지역 모두 높은 인구 유출 경향을 보이고 나,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강원도의 경우 평양으로의 전출 인구는 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평양직할시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있다. 특히 함경남도는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의 약 2배에 가까울 정 8.5%, 전입 인구는 14.3%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 낙 후 지역인 양강도와 자강도의 사회·경제적 조건과도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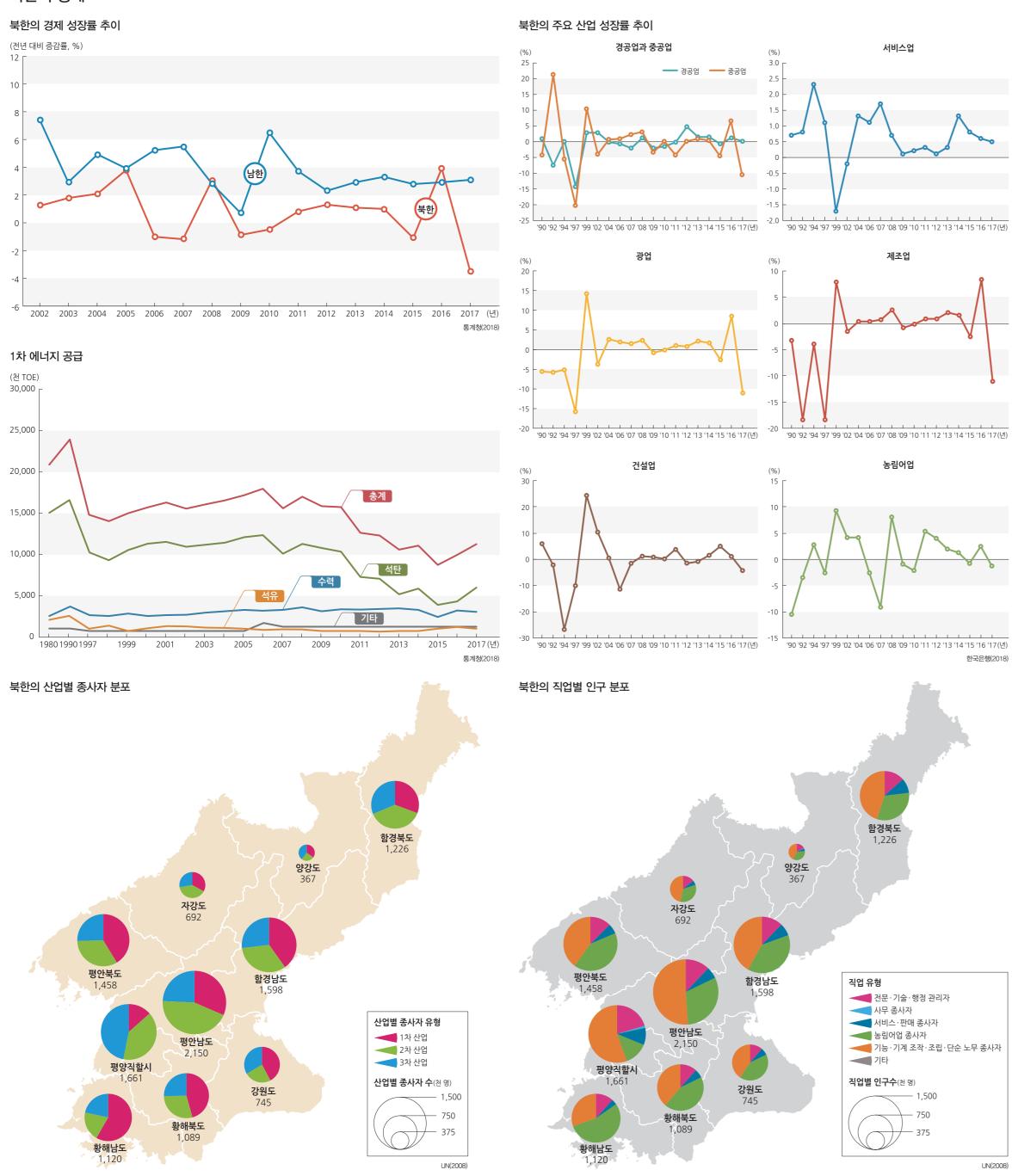
2008년 현재 북한 지역은 총인구의 64.6%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 1976년 56.7%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도시화 추세는 매 북한의 도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1940년에는 평양-청진-원 는 함경북도는 전체 인구의 70.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남포특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별시가 소재한 평안남도는 64.9%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2008년 현재 북한의 최대 도시는 평양직할시로 전체 인구는 325 두드러지면서 2008년 현재 평양-함흥-청진-남포의 도시 순위를

고 있다. 평양직할시의 경우 도시 전체 인구의 86,7%가 시가화된 지 우 더딘 상태이다. 그러나 2018 UN 세계 도시화 전망(UN World 산-함흥의 순서였다. 1967년에는 함흥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역에 거주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서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 Urbanization Prospects)에 따르면 도시화율은 2018년 이후 다시 평양-함흥-청진-원산의 순서였으나, 1982년에는 청진이 다시 이다. 뒤를 이어 나진·선봉 경제특구, 청진시 등의 주요 도시가 있 빠르게 증가하여 2041년에는 7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74.2% 제2위의 도시로 올라서서 평양-청진-함흥-원산의 순서를 나타

북한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만 5천 명이며, 그 뒤를 함경남도 함흥(76만 8천 명)과 함경북도 청 나타내고 있다. 이외의 다른 도들은 모두 평균 이하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또 진(66만 7천 명)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도시 북한 지역 도시 발달의 주요한 경향은 서부의 평양~남포와 동부 한, 북한 지역은 도시화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는 평양뿐이며, 50만 명 이상인 도시는 2개, 1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의 함흥 ~ 청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18개에 불과하다. 평양시의 인구는 2017년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외에 북부 지역의 혜산시, 강계시, 신의주시 등과 중부 지역의 평성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 지역은 광복 이후 산업화를 추진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2017년부터 북한 당국에서 평양시 인구를 대 시, 개천시, 순천시, 덕천시 등이 80% 이상의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 하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도시화율은 1953년 31%에서 폭 줄이려는 인구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 있는 도시들이다.

냈다. 1990년대 이후로 다시 함흥시가 추월하였고, 남포시의 성장이

### 북한의 경제



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이어졌다. 북한 경제는 1999년 이후 회복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를 보였으나, 2006년 이후 정체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 여전히 석탄이 가장 높은 비 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의 경제는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로, 2008년 현재 산업별 종사 인구를 분석하면, 북한의 경제 구조는 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05년 70.2%에서 2016년에는 중앙 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제 개발 계획이 지방 정 1차 산업 36.1%, 2차 산업 34.3%, 3차 산업 29.6%로 구성되어 있 43.2%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력의 경우 2006년 17.6%에서 2016년 부와 공장 및 기업소 등의 하위 단위에서 엄격하게 집행되는 일원 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 황해 에는 32.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석유의 경우 비중은 4.4% 화된 경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 주도의 계획 경제라는 특성과 남·북도의 경우 1차 산업 종사 인구의 비율이 58.1%와 45.6%로 가 에서 11.8%까지 시기에 따라 증감의 폭이 컸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 함께 북한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기조는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 장 높다. 평안남도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44.3%로 가장 높은데, 하고 있어 국제 제재, 북·중 관계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영향으 업ㆍ농업의 동시 발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한정된 자본과 자원으 이는 이 지역에 북한에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평남남부탄전, 로 보인다. 식량 수급량 추이의 경우,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1990 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중공업 우선 노선으로 나타났다. 경공업·농 평남북부탄전과 북한의 주요 산업 시설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 년대 중후반과 비교할 때 부족량 규모는 작아졌다. 2013년 이후부터 업의 발전이 동반되지 않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의 한계는 1990년 안중기계연합기업소, 남포제련소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북 는 매년 평균 480만 톤 정도의 곡물 생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식량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와 함께 심각하게 드러났고, 1990년대 중반 심 한 산업 발달에서 서비스업의 성장은 더딘 편이어서 평양직할시를 부족량은 연평균 53만 톤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식량 수 요량 대비 전년도 생산량이 80%에서 90% 초반을 오가면서 식량 공

#### 북한의 경제특구 온성섬관광개발구 🍑 경원경제개**발구** 자유경제무역지대 ■무봉국제관광특구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sup>●</sup>어랑농업개발구 • 만포경제개발구 • 위원공업개발구 • 청수관광개발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북청농업개발구 ♦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흥남공업개발구 특수경제지대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 현동공업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 강남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강령국제특색시범구 ◆개성공업지구 ♦ 중앙급 경제특구 ■ 중앙급 경제개발구 ● 지방급 경제개발구

#### 김일성 시대 경제특구

- 경제특구 정책 최초 도입(1991, 12, 28, '정무원 결정 74호')
- 동북아시아의 화물 중개·수출 가공·관광·금융·서비스 기지를 종합한 복 합적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한다는 목표
- 함경북도 라진시의 14개 동·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나진항·선봉항·청진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정(1993.01.31.)

#### 김정일 시대 경제특구

- 2000년대 초반 남북 경제 협력의 제도화와 남측과의 공동 특구 개발 및
- 2000년대 후반 북중 관계의 진전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라선경제무 역지대 공동 개발 및 공동 관리 추진
-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과 금강산관광지구법', 2011년 12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제정 및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전면 개정

#### 김정은 시대 경제특구

- 2013년 3월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 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
-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 •경제개발구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구분하고,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원경제개발구, 2017년 강남경제개발구 설치를 선포함

관광개발구 등으로 다양화 및 특화 • 2013년 11월 북한 전역에 걸쳐 13개의 경제개발구 설치, 2014년 7월 6

개의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하였고 이후 2015년 무봉국제관광특구, 경

####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총 개수	
공식 시장 수	65	51	48	46	34	34	ᇂᄱᅮ	
도	평양시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남포특별시	나선특별시	404	
공식 시장 수	30	29	24	18	21	4	404	
토익연구웨(2016)								

북한 주민의 살림집 장만 경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에서 배정받음	28.6	14.3	23.6	20.0	20.3	18.3			
내가 돈주고 샀음	46.0	66.9	53.5	55.2	49.3	58.8			
내가 직접 지었음	10.3	6.8	6.9	4.8	15.2	6.1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3.5	98	13.9	17.2	13.8	14.5			
친척, 주변 사람한테 받음	1.6	2.3	2.1	2.8	1.4	2.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8)									

북한 주민의 의류 구입 경로

						(인귀 · 70)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또는 장마당)	91.9	94.7	94.4	90.3	91.3	88.4			
국영상점	0.8	0.8	0.0	0.0	0.0	0.8			
직매점	0.0	0.0	0.7	0.0	0.0	0.0			
백화점	0.8	0.0	0.0	3.5	1.4	3.1			
외국에서 직접 구입	6.5	4.5	4.2	6.3	6.5	7.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8)									

평양 통일거리 시장

로 한 소위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 북한 국과 공동 개발 및 관리를 선포하였다. 은 대외 경제 관계를 보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필수적인 원자 노력을 시작하였다.

북한 경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기반으 함께 압록강에 위치한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에 대해 2011년 6월 중 하고 있다.

경제특구 정책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으며 그 대 \_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제도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려는 재 등을 최소한으로 수입하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주로 구 사회주의 상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 시도를 하였다. 이후 시장화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자 상행위 단속, 권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의 한 과 함께 각 도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표로 13개의 경제 개발 종합시장 폐쇄. 화폐 개혁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2010년 2월부 계를 느낀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점차 대외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구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의주를 새로운 특구 지역으로 선정 터는 다시 시장 활동 허용 등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였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6개 개발구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양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합법적인 공식 경 1991년 최초로 나진·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도입하면서 보다 적 \_ 를, 2015년 4월 무봉국제관광특구, 2015년 10월 경원경제개발구, \_ 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극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에 힘썼다. 뒤이어 김정일 체제 하에서 2017년 12월 강남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경제개발구는 중 2018년 현재 북한 전역에서 460개의 종합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2002년 9월 신의주행정특구, 10월 개성공업지구, 11월 금강산관리 앙급과 지방급 개발구와 함께 공업, 농업, 관광, 수출 가공, 첨단 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업 자본의 축적을 통한 새로운 계급인 지구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핵 실험 등으로 📑 술 등의 분야로 특화하여 개발 중이며, 기존의 경제특구를 포함해 총 📑 '돈주'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북중간 공식 및 변경 무역, 밀수 등을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나 27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북핵 및 미사일 실험에 통한 다양한 재화의 유통에서부터 아파트 건설과 매매 등 건설업에 진 · 선봉경제특구를 2010년 1월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이 지역과 때른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개방은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이지 못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도입을 통해 기존의

#### 남북한 교역 및 경제 협력 연혁

• 1988.07.07.	• 1988.11.14.	1990.08.01.	1990.09.25.	• 1992.10.05.	1994.06.20.	1994.11.08.	• 1995.05.17.	1998.04.30.	2000.09.01.	• 2001.12.31.	2002.09.18.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최초 반입 승인 (대우, 도자기 519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최초 협력 사업자 승인 (대우)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에관한고시」 제정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제1차) 발표 경제 인사 방북 및 위탁 가공 교역 기술자 방북 허용 등	최초의 협력·사업 승인 (대우)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제2차) 발표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생산 설비 반출 제한 폐지, 협력 사업 투자 규모 제한 폐지 등	제2차 장관급 회담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공동 추진 합의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 기준에관한고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2013.11.13.	2009.10.14.	2008.12.01.	2007.05.17.	2006.06.06.	2005.08.18.	2005.08.11.	2005.08.01.	2005,06,13,	2004.10.31.	• 2004.03.05.	2003.08.28.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한·러 사업자 간 MOU 체결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실무 회담-방류 사전 통지 등 합의	북한, 남북 육로 통행 제한 등 '12.01. 조치' 실시 (2009.08.20. 해제)	남북 열차 시험 운행 (12.11. 화물열차 개통)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ㅡ「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 해사 당국간 유선 통신망 연결	「남북 해운 합의서」 및 「남북 해운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발효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 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수송 장비 운행 및 선박 운행과 관련된 기존 고시 통합	경의선·동해선 도로 공사 완료 (12.01. 개통)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서명(09.29. 발효)

2014.02.1113.	2014.07.1522.	2014.11.2128.	2014.11.2428.	2015.04.1723.	2015,08,05,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1차 현지 실사(나선 지역)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2차 현지 실사(나선 지역)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나진-포항 석탄 시범 운송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1차 시범 운송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2차 시범 운송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ष्ठ व ४ ४ १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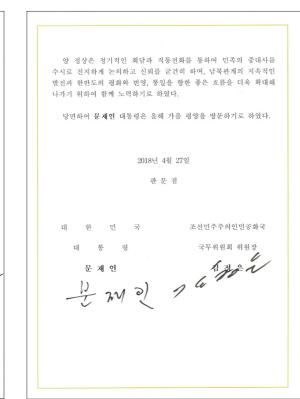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 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월 평양 공동 선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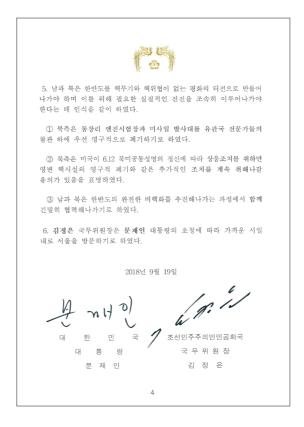
이산가족 상봉(당국 차원)

방남 상봉 ♣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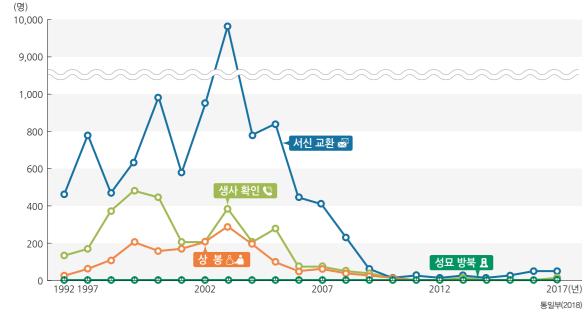


판문점 선언(2018)

화상 상봉 🖳



이산가족 상봉(민간 차원)



싼 냉전 질서에 의해 반목과 적대의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1980년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측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측의 김 행하였다. 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 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고, '남 양에서 열렸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공동 선언에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 관계는 1945년 분단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를 둘러 통한 남북한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서는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경제 협력을 2008년 이후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가, 2018년 남측의 문재인 양 공동 선언'에 담겼다.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무위원장 간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진

되면서 국제 냉전 질서가 해체되었고 1997년 2월 김대중 정권이 들 부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남북 공동 성 진행되었고 남북 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 어서면서 햇볕 정책이라 불리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이 추진되었다. 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 성명은 '10·4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도 불리 언'을 발표하였으며, 네 번째 정상 회담은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그 결과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남측의 는데, 여기서는 6·15 공동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 발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되었다. 다섯 번째 정상 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 회담이 평 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은 2018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비핵화와 함께 군사, 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합의가 '9·19 평

통일부(2018)

세 번째 정상 회담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2018.08.13.-08.20. 2018.11.30.-12.17. 2015.11.18.-12.07. 2016.01.06. 2016.02.10. 2018.12.26. 경의선(개성-평양) 도로 남북 공동 조사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북한, 제4차 핵 실험 경의선(개성-신의주)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 공단 전면 중단 3차 시범 운송 (03.02. UN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현대화 착공식 \*2016.02.07.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 분야별 남북 회담 개최 현황(1971-2018) 인도적 대북 지원 (단위: 회)

2004



통일부(2018)

합계 연도 정부 차원 민간 차원 식량 차관 1,856 ■ 민간 차원 422 ■ 식량 차관 429 2,421 1,758 3.228 578 3,373 4.230 1.558 3,927 2.981 4.397 1.164 671 114 77 65 2019 106 170 276

(단위: 억 원)

남북 사회 문화 교류

남북 교역액 추이

**-○**-계 <del>--</del> 반입 <del>--</del> 반출

3,000 ┌

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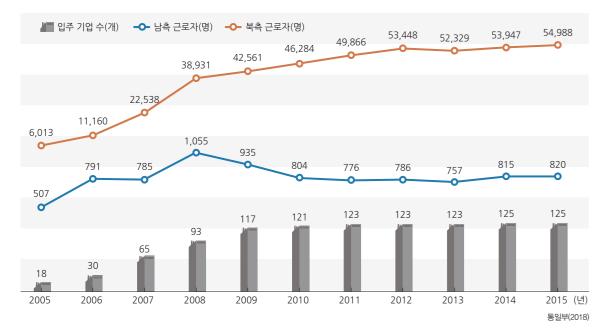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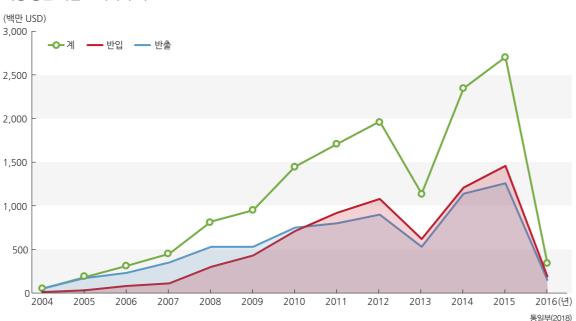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 등의 사업이 안정화된 2010년부터는 경제 협력(개성 공단, 금강산 후에는 급격히 축소된 양상을 보였다. 협 활성화 조치와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경 가, 점차 경제 협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 협력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교역과 직접 투자의 순으로 발전하였다. 북에서 남으로 반입되는 경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의 다양 게 진행되고 있다. 우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성 공단 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증가하다가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08년 이

다가, 1970년대 들어 양국 적십자사 간 물자 교류 논의로 시작되었 관광, 기타 경공업 협력)에서의 반입액이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을 그러나 2018년 남북 관계의 회복은 특히 남북 문화 예술 교류에 다. 이후 1994년 11월 8일 김영삼 정부는 제1차 남북 경협 활성화 처음으로 앞질렀다. 남에서 북으로의 반출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 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예 조치를 발표하였고, 1998년 4월 30일 김대중 정부의 제2차 남북 경 는데, 남북 경협의 초기 비상업적 거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 술단의 상호 방문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었다. 이외에도 2018년 10~12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재개, 2018 아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은 이산가족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 시아 경기 대회 개회식 공동 입장 및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 등 체 남북 경협은 상품 교역 등의 일반 교역에서 시작하여, 위탁 가공 다.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던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민간과 육, 학술,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수 및 근로자 현황







개성 공단 전경 경의선 도로 출입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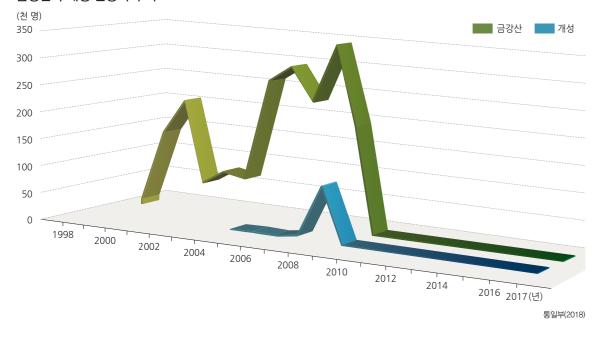






개성 공단의 근로자

금강산과 개성 관광객 추이







금강산 관광

11월 18일에 시작되었고, 북측에서는 2002년 11월 13일 '금강산관 강산역-제진역 구간에 대한 열차를 시범 운행하였으며, 그해 12월 년 8월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이다. 광지구법'을 제정하여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부터는 경의선 문산-봉동 간의 화물 열차 정기 운행을 시작하였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행을 위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경색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에 열차 운행이 2018년 6월 26일 10년 만에 남북 철도 협력 분과 회담을 가지고 남 남과 북은 2000년 7월과 8월에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하 중단되었는데, 이때까지 총 222회(편도 기준) 운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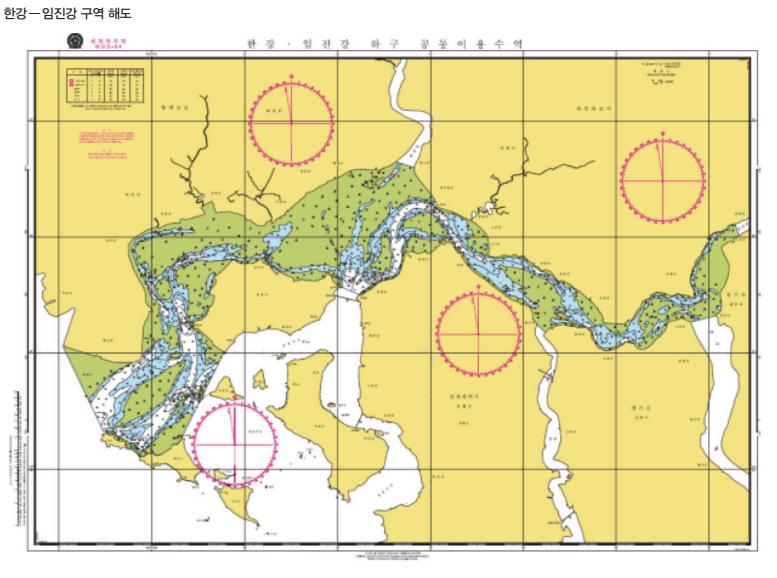
여 경의선 철도(서울 — 신의주)와 도로(문산 — 개성)의 연결에 합의하 개성 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아 화를 위한 선행 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 조사를 진행하 였다. 이후 2002년 9월 18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 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합의로 시작되어, 2003년 6월 30일 1단계 기로 하였다. 그 결과 11월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 개성 — 신의주 사 착공식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3년 초부터 경의선 도로를 통하 330만m²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4년 12월 15일 입주 기업 구간(약 400km)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약 800km)을 공동 여 개성 공단 개발을 위한 임시 통행이 시작되었고, 동해선 도로 역 에서 첫 제품을 출하하였다. 2015년 12월 개성 공단 사업은 입주 기 으로 조사하였고,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주요한 남북 경협 사업으로는 금강산 관광 산업, 남북 철도·도로 시 2003년 2월 11일 임시 도로 개통식 이후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 업 125곳, 북측 노동자 5만 5천 명, 누적 생산액 32.3억 달러로 빠 연결 사업, 개성 공단 개발 사업 등이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해 이용되었다. 2007년 5월에는 경의선 문산역 - 개성역, 동해선 금 르게 성장하였으나,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폐쇄 결정으로 2019

북 철도 연결 구간 공동 점검을 실시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

철원 중부 전선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GP) 폭파 제거







지뢰 제거 작업



2018년 9월 19일 평양 정상 회담에서 평양 공동 선언의 부속 합의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 이와 함께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JSA) 비무장화 작업을 시작하 직접 방문하여 철수 및 파괴 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상호 현장 검증 택되었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적대 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 평화 여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남·북·유엔사 공동 검증 등을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 하구 지대화, 서해 평화 수역 조성, 교류 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군 10월 말까지 완료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비무장 지대 내 쌍방 에서의 민간 선박 자유 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로, 2018년 10월 1일 강 월 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를 제외한 10개 비무장 경 지역의 긴장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지대 감시 초소에 대해 철거·파괴 작업을 완료하였다.

12월 12일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군인들이 상대측 GP를 사적 신뢰 구축 조치 등 기존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를 포괄하는 1km 이내 근접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 시범 철수를 진행하여, 11 수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 관계의 진전은 남북 간 접

65